

## 조지 허버트 시에 나타난 신앙 여정

신현호(백석대 어문학부 영어학 전공 교수)(문학세계관 5-2)

### 논문초록

17 세기 영국시단의 주류를 이루었던 형이상학과 시인들 중 한사람인 조지 허버트(George Herbert)는 『성전』(*The Temple*)에 수록된 시편들을 통하여 자신이 경험한 영적갈등과 구속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관계가 회복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신앙 체험은 그의 개인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영적 성숙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신앙의 갈등과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죄로 인해 야기된 갈등과 고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치유되고 그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영적 회복에 이르고 궁극적으로 자유를 얻게 되는 허버트의 신앙의 성숙되는 과정을 다루면서 영적 갈등이 신앙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고찰하고자 한다.

**주제어:** 허버트, 영적갈등, 구속, 회복, 하나님 사랑, 은혜

## I. 서론

17세기 영국은 정치적, 경제적, 사상적 측면에서 혼란과 갈등의 시기로 급변하는 무질서한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의 안정을 희구하며 그 대상을 갈구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성직자들의 설교 모음집과 신앙서적 및 종교와 관련된 글들이 많이 양산되며 기독교적 저술활동이 활발”하였다(Low, 226). 허버트(George Herbert 1593-1633)는 영국시의 고전적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작가 가운데 한 사람으로 당시 활동했던 종교시인들 중에서도 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작품 속에 진솔하게 투영하며 예술로 승화시킨 작가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 관계를 묘사하는 데 있어서 허버트만큼 복음에 근거하고 성경에 철저하며 정직하고 심오한 시인은 드물다. 그는 자신의 시적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찬미하는 데 사용하였다. 자신에게 부여된 모든 재능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바칠 것이라고 서약한 허버트는 세속적인 명성과 영예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고 죽는 날까지 성직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인지하고 전달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하였다. (Summers, 178.)

허버트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인간 최악의 심리적 복잡성과 이에 맞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 그리고 값없는 구원이라는 복음으로 죄에 빠진 인간의 상황을 깨뜨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탐구한다.

허버트는 소위 형이상학과 시인들 중에서 종교시에 몰두한 당시 문학적 풍토에서는 매우 특이한 작가이기는 하지만 그도 세속적인 성공과 종교적인 열정사이에서 갈등을 겪은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갈등을 종교적인 확신으로 승화시킨 종교적인 시인으로 그의 시에는 종교적인 체험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허버트는 잘 훈련된 지적인 정신의 기지와 독창성을 사용하여 자신의 종교적인 체험을 문학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제한된 종교적인 경험의 세계를 그리고 있으면서도 심오한 사상과 복잡한 심리적인 통찰력을 그 속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단순 명료한 표현법으로 그것을 전달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허버트가 생전에 지은 거의 모든 시를 묶어 편찬하여 그의 사후에 출판된 시집 『성전』 (*The Temple*, 1633)에서 몇 편의 시를 선정하여 시적 기교와 방법을 분석하면서 주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이 시집은 허버트가 영적 삶을 파고 들어가는 데 맞춰서 시를 배열하고 있으며, 하나님과 허버트 자신의 영혼 사이에서 지속되는 많은 영적 갈등을 노래하고 있으며 이런 갈등을 겪는 동안에 그가 자신의 의지를 주 예수의 뜻에 순종시키는 과정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한 영적회복과 자유에 대해 진솔하게 묘사하고 있다.

허버트는 어떤 형태의 기독교가 올바른 것인지를 잘 알고 있다. 그의 시에 나타나는 투쟁은 세속을 향한 관심과 하나님께 바치는 완전한 순종 사이에서 일어나는 투쟁이다. 그리고 그러한 투쟁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는 고백으로 표현되어 있다. 영어로 쓰여진 어떠한 종교시인의 작품도 그렇게 효과적으로 강렬한 개인의 경험을 일반적으로 규범이 되는 경험으로 결합시킨 것은 없을 것이다. 허버트의 시에는 종교와 예술이 완벽하게 결합되어 나타난다(Daiches, 371).

허버트는 조용하고 내적이며 섬세하고 우아하고 단정하다. 기독교적인 표상과 이미지  
 리가 풍부한 위대한 전통 내에서 시를 쓰면서 그는 색다른 표현 기법과 일상의 평이한  
 이미지들을 사용하는 데 기쁨을 느낀다. 기독교적 전통에 따른 형식과 심상이 농후한  
 그의 시들은 기상(conceit)과 일상생활 주변의 이미지를 결합시켜 조용함과 경건함과 미  
 적 감상 등을 기독교적 주제와 함께 담아내고 있다. 본 논문은 허버트 자신이 체험한  
 영혼의 갈등과 그 극복과정을 살펴보고 허버트가 이를 통해 깨달은 그리스도의 대속과  
 구원에 대한 그의 생각을 다루고자 한다.

## II. 신앙의 갈등

인간이 하나님이 금지시켰던 선악과를 따 먹던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했던 그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시작되었으나 인간은 그 구원의 과정을 인식하지 못하였  
 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굳건한 집 한 채를 지어 주었건만 인간은 그 집을 세상적 모  
 형으로 변조하여 자신들의 세상 지식과 즐거움을 향유하는 곳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  
 다. 그래서 세상은 거미줄로 지은 집과 같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운명에  
 자신들의 삶을 지탱하게 되었다. 쾌락만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법보다 세상의 법을 우선  
 하였다. 결국 이러한 삶은 죄로 연결되고 죄의 삯은 사망이므로 세상은 죽음으로 가득  
 차게 된다.

The Sin combined with Death in a firm band  
 To raze the building to the very floor:  
 Which they effected, none could them withstand.  
 But Love and Grace took Glory by the hand,  
 And built a brave: Palace than before. <sup>1)</sup>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그대로 유기하지 않고 끊임 없이 사랑과 은총을 인간을 향해  
 쏟아 부음으로 인간이 죄 가운데 사는 것을 방치하지 않고 처음 지은 것보다 더 좋은 곳  
 을 예비해 놓고 계신 것이다. 허버트는 "인간(Man)"에서도 죄로 물든 세계를 묘사하고  
 있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어 진 모든 것들이 점점 쇠퇴해져가며 '만물을 다스리라' 명  
 령받은 인간이 그 본분을 잃고 짐승과 같은 신분으로 타락해 가고 있다.

. . . . . to whose creation  
 All things are in decay.

For Man is ev'ry thing,  
 And more: he is a tree, yet bears more fruit;

1) Cesare, Mario A. ed(1978). *George Herbert and the Seventeenth-Century Religious Poets*.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p.36 앞으로 시의 인용은 이 책에서 출처하며 인용 후  
 페이지만 명기한다.

A beast, yet, is or should be more:

. . . . . (40)

허버트가 세상이 죄로 가득 차 있고 버림받을 만한 위치에 있음을 강조하고 인간이 원래의 지으심 바를 상실해 가는 것을 비난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아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허버트는 인간의 타락이 가지는 의미를 중요시 하고 있다. 허버트에게 인간의 타락은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인 것이다. 인간이 타락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부활절 날개(Easter Wings)”는 시의 형태가 날개의 모양을 취하고 있는 형상시로서 시각적으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 시에서 화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인간이 죄로 인해 비참한 상태로 전락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다시 날개처럼 비상하여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기를 간구한다.

Lord, who createdst man in wealth and store,  
Though foolishly he lost the same,  
Decaying more and more,  
Till he became  
Most poore:  
With thee  
Oh let me rise  
As larks, harmoniously,  
And sing this day thy victories:  
Then shall the fall further the flight in me.

My tender age in sorrow did beginne:  
And still with sicknesses and shame  
Thou didst so punish sinne,  
That I became  
Most thinne.  
With thee  
Let me combine,  
And feel this day thy victorie:  
For, if I imp my wing on thine  
Affliction shall advance the flight in me. (16-17)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함으로써 타락하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인간은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고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된다는 역설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인간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

함으로써 '상승(rise)'하게 된다면 인간의 '타락(fall)'은 하나님의 '비상(flight)'을 더욱 촉진시키는 것이다.

인간이 교만과 불순종으로 타락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었지만 이 고통이 인간을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총을 갈구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인간을 인도하기 때문에 타락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은 향유하지 못했을 것이다. '행복한 타락(Felix Culpa)'이라는 역설적 진리를 기초로 시의 화자는 타락을 구원의 디딤돌로 삼고 비참함을 영예로운 상태로 전환시키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

시의 화자인 허버트는 제 1연의 전반부 5행에서 창세기에 나타난 인간의 창조와 타락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후반부에서 화자는 아담의 죄를 자기의 죄로 받아들이고 그 어리석음이나 타락상이나 빈약성을 모두 자신의 것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암시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봄의 도래를 생각하면서 종달새처럼 하늘 높이 비상하여 하나님을 찬미하고 싶은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종달새는 아침을 나타내는 새인 동시에 높이 비상하여 아름다운 목소리로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새로 유명한 새이며 성직자의 겸손을 암시하기도 한다. 허버트는 종달새의 이미지를 통해 타락의 깊이에 대응하는 비상의 높이에 대한 소망을 간절하게 표현하고 있다(최종수, 90).

2연에서 허버트는 자신의 반생을 슬픔과 질병과 수치와 범죄의 과정으로 회고한다. 그의 소원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며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신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할 뿐 아니라, 온 몸으로 그것을 실감하는 일이다. 허버트는 하나님의 날개를 자신의 상하고 파괴된 날개에 접붙여 새로운 힘을 얻어 하늘로 비상하기를 소원한다. 그는 자신의 아픔이나 슬픔이 예수 그리스도의 괴로움이나 고통처럼 부활로 이어지는 계기가 됨을 확신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인간이 참여하게 되면 슬픔은 변하여 기쁨이 되고 탄식은 변하여 환호가 되며 눈물은 변하여 웃음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죄로부터 해방되고 구원되기를 끊임없이 간구하면서도 죄의 그늘에서 온전히 자유 할 만큼 강하지 못하다. 허버트는 인간을 짓누르는 죄의 속성에 대해 신랄하게 말한다.

Who would know Sinne, let him repair  
Unto mount Olivet; there shall he see  
A man so wrung with pains, that all his hair,  
His skinne, his garments bloudie be.  
Sinne is that presse and vice, which forceth pain  
To hunt his cruell food through ev'ry vein. (13)

죄는 악행일 뿐아니라 인간에게 고통을 강요한다. 그럼에도 불완전한 인간으로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피할 수도 없다. 인간은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질고를 당하시고 그의 살이 찢기고 의복이 피로 물들었음을 알아야 한다. 고뇌에 찬 허버트는 예수그리스도의 흘리신 피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임을 고백한다.

Who knows not Love, let him assay  
 And taste that juice, which on the crosse a pike  
 Did set again abroach: then let him say  
 If ever he did taste the like.  
 Love in that liquour sweet and most divine,  
 Which my God feels as bloud; but I, as wine. (pp.13-14)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죽으셔야만 했고 그 죽음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의 사랑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죄가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 또한 우리에게 나타내지 못했을 것이다. 허버트는 인간 모두가 죄인임을 말하고 사랑의 전제조건이 죄라는 역설을 제시한다.

허버트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까지는 많은 반항과 갈등이 있었다. 그는 일생을 통해 야망의 달콤함과 세속의 부귀영화에 끊임없이 유혹을 받았다. 그러므로 그의 시는 갈등과 결단의 기록이며 세속적 성공과 성직자의 길 사이에서 끊임없이 번민하며 고뇌하는 가운데 성숙해져 간 신앙의 산물이다(Knights, 245). 허버트의 갈등과 반항은 하나님께 진정어린 순종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었다.

I struck the board and cried, "No more;  
 I will abroad.  
 What, shall I ever sigh and pine?  
 My lines and life are free, free as the road,  
 Loose as the wind, as large as store.  
 Shall I be still in suit?  
 Have I no harvest but a thorn  
 To let me blood, and not restore  
 What I have lost with cordial fruit?  
 Sure there was wine  
 Before my sighs did dry it; there was corn  
 Before my tears did drown it.  
 . . . . .  
 But as I raved and grew more fierce and wild  
 At every word,  
 Methought I heard one calling 'Child!'  
 And I replied, 'My Lord!'(55)

허버트는 성직자가 되기로 결심한 이후나 성직자가 된 이후에도 세속적인 출세를 꿈꾸거나 세속적인 쾌락에 대한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시를 통해 알 수 있다. 호수처럼 고요한 그의 마음 속에도 젊음이로서, 인간으로서 걱정은 심하게 꿈틀대었다. 이러한 허버트의 정직한 고백이 있기에 그의 시들은 감동적인 것이다.

항상 하나님께 시중드는 자신의 모습을 참지 못해 ‘성찬대’(Communion Table)를 손으로 치고 고함을 지르는 불경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시의 화자 허버트는 하나님께 예속된 삶을 버리고 마차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절규한다. “성찬대’를 치는 것은 하나님과의 결별을 나타내는 행동이다. 성직자나 성도가 경건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내해야 하는 ‘목걸이’(collar)와 같은 구속과 차단은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 ‘collar’는 같은 발음을 가진 ‘choler’(짜증, 분통)를 연상하게 하기도 한다. 그리스도인에게 경건한 신앙생활을 위해 필요한 하나님의 구속은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자증을 주며 우리의 삶을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날마다 회개하고 애통의 눈물을 흘리며 거듭남을 다짐하고 결단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눈물과 한숨과 양심이 상처투성이로 가득한 삶이 아닐 수 없다. 세속적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 교회가 제정한 제도와 규율에 얽매이고 모래 밧줄처럼 보이는 연약하고 일시적인 교리에 예속되어 있는 것이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참 자유를 상실하였고 인간의 자만과 죄로 예수 그리스도는 가시 면류관을 쓰신다. 그것은 인간 타락의 상징인 동시에 역설적으로 인간 구원의 상징이다. 타락과 구원의 개념이 내면에서 짝트게 됨에 따라 허버트는 자신을 초라하고 나약한 존재로 여기고 깊은 불신의 늪에 빠졌다가 순종이라는 미덕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갈등을 승화시킨다. ‘애야!’하는 하나님의 한마디 음성은 인간의 모든 불평과 불만뿐만 아니라 모든 죄악을 일시에 소멸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네 자녀다’라고 인정해주는 음성은 소망과 용기를 주며 자유와 행복을 보장해 주는 말이다. 허버트는 자신의 모든 불만과 갈등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눈 녹듯이 해소되는 신앙적 경험을 이 시에서 형상화 하고 있다. 허버트의 순종과 확신은 정신적 갈등의 산물이며 영적인 고뇌의 터널을 지나 얻어진 것이다. 세속적인 가치와 영속적인 가치 사이에서 갈등을 겪은 후 터득해서 얻은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인 것이다.

### III. 신앙의 회복

허버트의 속죄는 자신의 고통과 고뇌를 더 이상 하나님이 내린 형벌로 보지 않는 데 있다. 갈등을 순종으로 승화시킨 그는 자신의 고뇌가 자신의 죄의 결과로 야기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한다. 처음에 허버트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기 보다 고통을 주어 인간을 괴롭히는 존재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체험하고 난 후 그는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여 인간을 인도하고 구원해 주려는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 허버트는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인간의 잘못을 용서하고 구원하려 하지만 인간들이 그 사랑을 거부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그는 인간이 그리스도의 수난을 인식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 구원에 이르기를 간구한다. “속죄(Redemption)”에서 허버트는 복음서에 나오는 비유 형식을 빌어서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간의 관계를 조각인과 지주의 관계로 대치시키면서 구원에 대한 성도의 청원을 탐색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14행의 짧은 시속에 간결한 표현으로 형상화 하고 있다.

Having been tenant long to a rich Lord,  
 Not thriving, I resolved to be bold.  
 And make a suit unto him, to afford  
 A new small-rented lease, and cancel th' old.  
 In heaven at his manor I him sought

. . . . .  
 Of thieves and murderers: there I him espied,  
 Who straight, Your suit is granted, said and died. (14-15)

인간의 구원을 토지 임대 계약 관계로 묘사하고 있는 이 시는 구약시대에傭매인 율법적인 구원관을 배격하고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는 새로운 구원관을 제시하고 있다. “오랫동안”이란 말은 어디서 하나님을 찾아야 할지 몰랐던 어리석은 인간들의 긴 종교적 탐색을 함축하고 있다. “낡은 토지”란 형식과 규율이 엄격하고, 충족시켜야 할 조건이 까다로운 유대교의 율법주의를 암시하며, “소작료가 적은 토지”란 단순히 예수께로 나아가 믿고 고백하면 구원받는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전 토지를 버리고 새로운 토지를 빌려줄 것을 청원하는 일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첫 계약인 ‘행위 언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계약인 ‘은혜의 계약’을 맺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마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으로 17세기 영국의 퓨리탄들이 지칭했던 새로운 은혜시대의 도래를 우의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가난한 소작인인 성도가 추구하는 어떻게 성취되는지의 결론이 14행으로 이루어진

이 시의 마지막 행에 선명하게 부각되어 있다. 예수가 달려있던 옆 십자기에 달려있던 강도중 하나가 예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구원을 청했을 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누가복음 23장 43절)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행의 “너의 청원이 허락되었느니라”고 한 말이 바로 그 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 한마디로 어떠한 흉악한 죄인도 완전한 속죄를 받는다. 이 말은 1행에서 13행까지 그리스도를 찾기 시작한 때부터 그를 찾아 낸 순간까지의 탐색이 길고 복잡했던 것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허버트의 이러한 시적 기법은 예수의 은총과 속죄의 원리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매우 적절하다. “죽으셨다”라는 이 시의 짧은 결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버림으로써 인간 구원의 역사를 완성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인간에게 주어진 구원의 길과 휴식과 평화는 십자가의 수난과 그 희생의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수난과 속죄의 심상이 “순례(The Pilgrimage)”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My hill was further: so I flung away,  
 Yet heard a crie  
 Just as I went, None goes that way  
 And lives: If that be all, said I,  
 After so foul a journey death is fair,



And but a chair. (54)

하나님들이 겪는 수난과 고통은 때로는 하늘의 위안으로 바뀐다. 순례자가 가는 언덕은 저 멀리 있고 그 곳은 죽음을 통해서만이 도착할 수 있다. 허버트가 이 시에서 암시하는 진정한 안식처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다. 이 땅의 것은 한시적 가치를 지닐 뿐이며 이 땅에서의 수고는 무의미해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성도가 겪는 고난은 곧 다가오는 세상의 영광을 의미하기 때문에 순례자가 안식처로 가기위해 통과하는 죽음은 고통스럽게 보이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인간의 죽음에 보혈을 부여넣은 이후에 성도의 죽음은 아름답고 기쁨이 있으므로 그리스도인은 잠자는 듯 죽을 수 있으며 ‘정직하고 충실한 무덤에 자신을 맡기고 심판일에 새로운 옷을 입고 모든 뼈들은 아름다움으로 치장을 하게 될 것이다’(pp.66-67). 이제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 죽음은 더 이상 죄의 삯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과정이 되는 것이다.

인간이 스스로 지은 죄로 인한 타락과 그로 인한 죽음에서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리고 그 은혜는 죄인 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베풀어 진다. 하나님은 죄로 인한 인간의 고뇌에 친히 동참하시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성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인간이 겪는 불행을 함께 겪고 인간이 하나님과 화합하기를 염원한다. 허버트는 십자가의 고난이 구원을 이루는 밑거름으로 보고 하나님의 은총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슬로 묘사한다. 이슬이 초목에 생기를 주듯이 하나님의 은총이 시들은 영혼을 촉촉이 적시어 생명을 주고 활기를 불어 넣어 준다.

Death is still working like a mole,  
And digs my grave at each remove:  
Let grace work too, and on my soul  
Drop from above.

Sin is still hammering my heart  
Unto a hardness, void of love:  
Let suppling grace, to crosse his art,  
Drop from above.

O come! for thou dost know the way:  
Or if to me thou wilt not move,  
Remove me, where I need not say,  
Drop from above. (p.29)

죽음과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기를 기원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얻은 인간은 성만찬 예식을 통해 하나님과 영적으로 결합하여 주가 우리 안에 거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다. “사랑 III(Love III)”은 마태복음 26장 26절과 27절에 묘사되고 있는 최후의 만찬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성만찬의 의미는 인간의 허물과 죄를 씻어낸다는 것으

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죄로부터 해방을 얻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체험하는 것이다.

Love bade me welcome: yet my soul drew back,  
Guilty of dust and sin.  
But quick-eyed Love, observing me grow slack  
From my first entrance in,  
Drew nearer to me, sweetly questioning,  
If I lacked any thing.

"A guest," I answered, "worthy to be here":  
Love said, "You shall be he."  
"I, the unkind, ungratefull? Ah my dear,  
I cannot look on thee."  
Love took my hand, and smiling did reply,  
"Who made the eyes but I?"

"Truth Lord, but I have marr'd them: let my shame  
Go where it doth deserve."

"And know you not," says Love, "who bore the blame?"  
"My deare, then I will serve."

"You must sit down," says Love, "and taste my meat:"  
So I did sit and eat. (69)

이 시는 『성전』 맨 마지막에 수록된 시로 허버트의 신앙 편력의 종착점을 보여주는 시로서 주인과 손님 사이의 대화로 이루어진 극적인 스토리로 전개되고 있다. 하나님의 만찬에 초대 받은 인간이 자신의 죄스러운 모습 때문에 선뜻 참여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겸손한 태도와 그런 인간을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너그러이 따뜻하게 대접하여 결국 잔치에 참여하게 만드는 ‘사랑’이란 호칭으로 의인화 되어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평이한 필치로 선명하게 묘사하고 있다.

1연에서 하나님을 의미하는 사랑은 나를 반갑게 맞아주지만 나의 영혼은 뒤로 물러선다. 그 이유는 죄의 허물로 나의 영혼이 더러워져 있기 때문이다. 내가 고뇌하고 갈등하고 방황했던 이유는 죄의 문제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의 해결은 나 자신이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가능하다. 사랑은 죄로 인해 기운빠져 있는 시인에게 상냥하게 부족한 것이 있느냐고 물어 본다. 그리하여 2연에서 손님자격이 없다고 주저하는 나에게 적극적인 환대의 행동을 보인다. 이에 나는 불친절하고 배은 망덕하여 사랑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다고 고백한다. 그러나 자신의 부족과 허물을 인정하고 낮은 데로 향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전제가 된다. 나는 ‘귀하신 분’의 고귀한 사랑

을 절실히 필요함을 느끼지만 자신의 판단과 생각으로 감히 그 사랑을 받을 수 없음을 말한다. 이러한 나에게 사랑은 더욱 강하게 다가와 ‘당신의 눈을 나 아닌 누가 만들었나요?’ 하고 반문한다. 모든 것을 인간에게 제공한 것은 하나님 바로 당신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랑에 3연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눈’을 내가 훼손하였기 때문에 죄책감과 수치심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한다. 허버트는 ‘eye’ 와 2연 마지막 행의 눈을 만든 ‘I’를 pun으로 사용하여 눈을 훼손시켰다는 것은 곧 하나님 과 그 사랑을 훼손시켰다는 의미임을 나타낸다. 나는 사랑에게 마땅한 수치의 대가를 받게 해달라고 간청한다. 그러나 사랑은 훼손의 책임을 나에게 전가하지 않겠다고 나를 설득한다. 인간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사랑의 하나님이 담당하시겠다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이다. 이에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사랑은 단순한 응답의 순종이 아니라 적극적인 태도를 요청한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전제는 ‘나의 살과 피를 마시라’는 명령에 대한 순종이다. 성만찬이 지닌 진정한 의미를 받아들일 때 구원이 주는 행복과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죄인을 반기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겸허하게 자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떡을 먹고 말씀대로 남을 섬기는 생활에 힘쓰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과 구속의 원리이다. 기독교의 본질은 난해한 신학의 학설 논쟁이나 엄숙하고 화려한 의식이나 거창하게 구호를 외치는 사업 전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명의 진보와 문화의 다양성 속에서도 결코 소멸되지 않을 병들고 때묻고 괴로워하는 개인의 심령을 반가이 맞이하여 치유하는 사랑의 실천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허버트가 일생동안 고뇌하고 갈등하며 자신의 체험을 통해 얻은 삶과 시의 결론인 것이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을 자신에게 부여한 시적 재능을 통해 기독교의 진리를 입체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다.

#### IV. 결론

허버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예술적으로 승화시켜 표현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 시인으로서 자신의 영적 갈등의 고통과 마침내 갈등을 극복하고 신앙의 회복과 승리를 작품 속에 투영하고 있다.

허버트는 초기에 자신의 세속적인 성공에 대한 욕망과 성직에 따른 종교적인 헌신에 대한 갈망 사이에 영적 갈등과 고뇌를 겪게 된다. 세속적 자아와 종교적 자아인식의 충돌로 야기된 갈등은 좌절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결국 허버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허버트는 갈등과 고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이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에게 갈등은 하나님을 향한 자아를 인식하는 과정이며 갈등에서 오는 고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각하게 되는 통로가 되었다. 자신이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려고 해도 그것은 헛된 수고에 지나지 않음을 허버트는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만이 자신이 의미 있는 삶을 영유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음을 허버트는 자신의 작품 속에서 솔직하게 고백하며 다소 추상적으로 여겨지는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면

서 신앙은 고착된 것이 아니라 영적 투쟁을 통해 성숙해 짐을 다시 일깨어 주고 있다.

#### Works Cited

이창배, 이재호 역(1981), 『17세기 영시』. 서울: 탐구당.

최종수(1994). 『영문학사에 빛나는 신앙 시인의 이해』.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Daiches, David(1970). *A Critical History of English Literature*. New York: The Ronald Press Company.

Dicesare, Mario A. ed(1978). *George Herbert and the Seventeenth-Century Religious Poets*.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Low, Anthony(1978). "Metaphysical Poets & Devotional Poets," in *George Herbert and the Seventeenth-Century Religious Poets*, ed. Mario A. Dicesare.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Summers, Joseph H(1974). "George Herbert: The Conception of form," in *The Metaphysical Poets*, ed. Gerald Hammond. London: The MacMillan Press Ltd..

# A Journey of Faith in George Herbert's Poetry

## Abstract

Hyun-Ho Shin (Baekseok Univ.)

George Herbert, one of the metaphysical poets in the seventeenth century in England, tries to express the real meaning of divine love and grace through his poems. *The Temple*, his only religious book of poetry, presents his process of religious maturity. Thus it holds many diverse themes and manifests his spiritual conflicts in endeavoring to follow God's way. Above all in his short life, the evaluation on his poetry is being elevated. The main reason is in his sincere and serious attitude in expressing his religious experience. He achieved simple style of poetry imposing contracted meaning on simple expressions.

There are several steps of faith in Herbert's poetry, the first step is in making a covenant to praise and pray to God. And the second is making fulfillment of the covenant. In the fulfillment, there is some kind of fights between worldly temptation and religious duty. In the last, the conflicts caused by afflictions changed him become obedient by his religious self-recognition, and then he could enter the road of God's salvation.

George Herbert finally comes to believe that God's grace and love always abides with him after he perceives himself as a wretched being, and that Christ's death is a sacrifice for man and His Salvation is secured by only God's grace and love.

**Keyword:** George Herbert, affliction, covenant, God's grace, salvation, love,